건강 칼럼

주걱턱, 꼭 고쳐야 하는 걸까?

오 창 현
바노바기 성형외과 원장

100세 시대가 오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웰에이징'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식'이다.

잘 먹어야 좋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며, 잘 먹기 위해서는 먼저 잘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아 구조는 교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합은 턱의 모양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5~17%가 주걱턱에 해당한다.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경우 초식을 하는 식습관 영향으로 턱이 발달해 주걱턱 비율이 높다.

이는 저작기능장애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봐야 한다.

주걱턱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크거나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걱턱 증상만 있는 경우 수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정교합을 동반한 주걱턱은 수술을 통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치아 구조 이상으로 인한 저작기능장애, 턱관절 불균형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상 치아의 마모현상이다.

위턱과 아래턱의 비대칭으로 인한 부정교합은 치아끼리 잘 맞물리지 못한다.

따라서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치아보다 정상적인 치아 사용의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양악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정상교합임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을 위해 양악수술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치아는 손대지 않고 얼굴 골격 구조만 바꾸는 안면윤곽수술이 적합할 수 있다.

양악수술은 상악과 하악의 바른 교합을 위해 턱뼈를 적합한 위치에 재위치 시키는 수술이다. 본래 미용이 아닌 기능 교정에 목적을 둔 수술이다.

미용적 성공 사례만 보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출혈, 감각 이상,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작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막연한 공포로 인해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악 수술은 본래 기능 교정을 위한 수술이라는 인식 정립과 함께 미용적 부분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라고 생각해야 한다.

심한 부정교합으로 인해 양악수술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 안면계측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X-ray 촬영을 통해 교합 상태를 살펴보고 수술 가능 여부와 치아 교정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양악 수술은 수술 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드라마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아와 턱뼈의 교합을 맞추는 고난도의 수술인 만큼 단편적인 성공사례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능적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피부와 근육까지 고려한 정교한 수술 계획을 세워야 수술 후에도 자연스러운 표정이 가능해 자신감을 되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사 설

전북 몫을 대외적으로 힘차게 말해야

도민들이 제몫 찾기를 열망하는 오늘이다. 그래서 또 다시 전북도에게 그것을 주문할 것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북도의 강력한 발언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지키는 열정을 가져야 겠다. 그러려면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북의 몫을 대외적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물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전북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몫 찾기에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전북의 공공기관들이 통합을 명분으로 광주와 전남에 예속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지난날 광주와 전남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여간 가관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딴죽걸기를 노골적으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도 그렇다. 그게 정치권의 광주형 일자리 압박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광주나 전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도 그것은 그렇다.많이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여기 서두에 했던 말을 또 하거니와 전북도는 제몫을 대외적으로 말해야 한다.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거듭 거듭 말했거니와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 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고장의 낙후 때문에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전북도는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겠다.전북이 대외적으로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얌전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과 충남에 치이고 광주 전남에 밀려온 세월이 한 두 해가 아니다. 지역의 오랜 낙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제몫을 대외적으로 힘차게 말해야 한다.

사업 추진은 증액된 예산이 말한다

예산 증액을 위한 행보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아직은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 두 부지사와 도지사가 릴레이로 나섰던 것은 잘한 일이다. 지역발전 현안사업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거듭 말했을 터이니 말이다. 그래도 생각해볼 점이 남아 있다. 그같은 설득 노력이 주효했는가 궁금하다. 다른 광역 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위해 그처럼 분주했을 터이니 말이다.

지금 예산 증액을 반복해 주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전북의 예산 증가율이 매년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겨우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사업이 생각보다 더딘 것이다. 이번에 새만금 예산이 증액된 것을 두고 성과가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그리고 탄소산업도 그렇다. 전북도가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있는 것과는 달리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진 쪽에서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익산식품클러스터사업도 그렇다. 사업을 벌인 지 오래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마뜩치 않다.

전북도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 전북의 낙후는 정부의 인색한 예산 편성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도 정부 탓만하기에는 세월이 아깝다. 인색한 예산 편성을 순응하듯 받아들인 탓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게 7조원 예산 확보 실패를 미리 연막치기 위한 것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무조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말이다.

전북도는 지금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예전처럼 해선 안 된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7조원이 훌쩍 넘게 증액된 예산이라야 가능하다.

전북도는 무엇인가 미심쩍다면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행보를 보여야 한다.

독자제언

다 타면 출발×, 안전띠 다 매면 출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유치원생 및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부모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뒷좌석에는 안전띠를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출근길 차량 혼잡 속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메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근거리라도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한 것으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할 경우 3만원, 13세미만 어린이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머리와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한다.

차량 운전시 안전띠 착용이 귀찮다며 또는 근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안전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어린이 안전띠 착용 및 카시트 장착은 교통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운전자 및 가정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다 맨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길 바란다.

신서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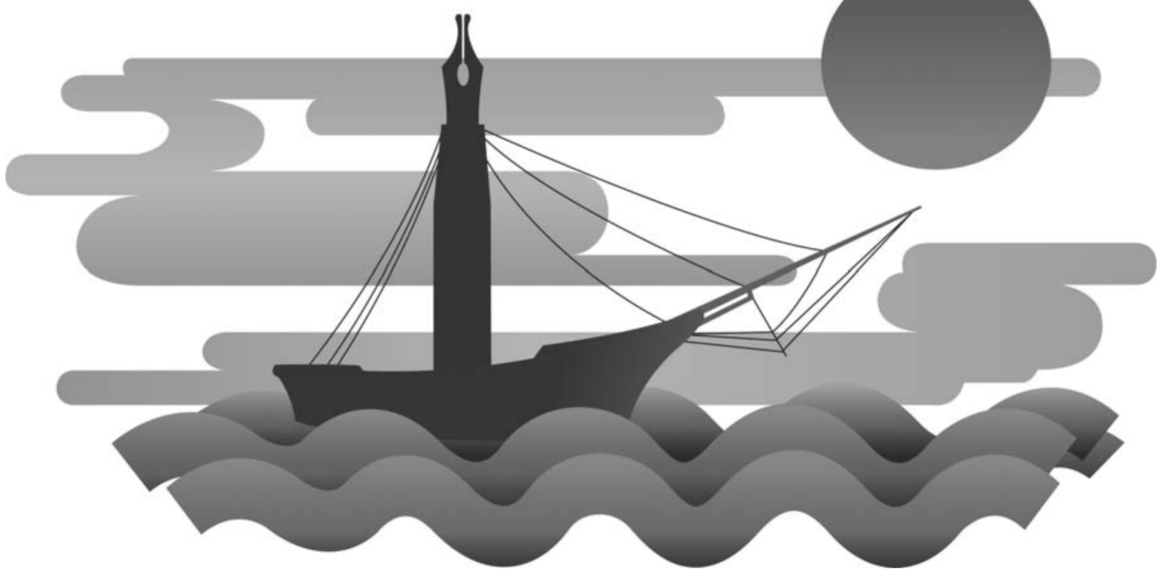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스&미스터 알비니즘 경연대회

28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미스 & 미스터 알비니즘 이스트 아프리카' 경연대회 리허설 참가자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케냐 알비니즘 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차별과 낙인으로 고통받는 알비노들의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본 대회는 30일에 열린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